

과기정통부, 세계은행과 함께 글로벌 AI·디지털 협력 논의

-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글로벌 AI·디지털 서밋」 개최(10월 19~22일, 서울)
- 배경훈 부총리, 60여 개국 장·차관급 대표들과 AI·디지털 장관회의 개최(10.19.)
- 포용적 AI·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등 의장 공동성명문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의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은행과 함께 10월 19일(월)부터 22일(목)까지 서울 그랜드하얏트에서 「글로벌 AI·디지털 서밋(Global AI · Digital Summit, GADS)」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189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금융·정책·기술 등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이다. 과기정통부는 세계은행의 개발협력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국의 AI·디지털 기술 및 정책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개발도상국과의 실질적인 협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공동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세계은행이 미국 외 국가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AI·디지털 서밋 행사라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행사는 19일(월) AI·디지털 분야의 주요 정책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장관회의를 시작으로 20일(화)부터 21일(수)까지 정책 포럼과 국내외 기업이 참여해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이는 기업 전시 등이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22일(목)에는 한국의 AI·디지털 기술 활용 현장을 직접 살펴보는 스터디투어가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005년부터 디지털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 협력 논의를 해왔으며, 지난해 21개 회원경제가 참석한

APEC 계기 AI·디지털 장관회의에 이어 올해 장관회의에는 60여 개국의 장·차관급 대표들이 참석하는 등 AI와 디지털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19일(월) AI·디지털 장관회의에서는 배경훈 부총리와 김상부 세계은행 부총재가 공동의장을 맡아 각국 대표들과 AI·디지털 전환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구상에서 실행으로(From Ambition to Action)”를 주제로 디지털 포용과 접근성 확대, AI를 활용한 공공 서비스 혁신, 혁신적인 AI·디지털 생태계 조성 등 3대 의제를 중심으로 각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여 주요 논의 내용과 향후 협력 방향을 담은 의장 성명문을 발표했다.

AI·디지털 장관회의 개요

- **(일시/장소)** '26. 10. 19(월) 09:00~13:00 / 서울 그랜드하얏트 1층 그랜드볼룸
- **(주제)** From Ambition To Action
- **(주요 참석자)** 60여 개국 장·차관급 수석대표, WB 고위급, ITU 등 국제기구
- **(의제)** ① AI를 활용한 디지털 포용, ② 공공 서비스의 AI 전환, ③ 혁신적인 AI 생태계 구축

한편,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19일 고위급 교류 세션과 만찬에 참석해 AI·디지털 분야의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모두의 AI’ 등 한국의 주요 AI 정책을 주요국 장차관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20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되는 정책 포럼에서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AI·디지털 분야의 주요 정책과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20일에는 이형일 경제부총리가 개회사를 통해 행사의 의미와 국제협력의 중요성 등을 강조할 예정이며, 21일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이 참석해 한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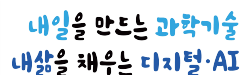
같은 기간 기업 전시에서는 국내외 기업들이 참여해 AI·디지털 분야의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

들이 최신 기술과 활용 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기술 교류와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에는 해외 참가자들이 한국의 AI·디지털 기술 활용 현장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스터디투어가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한국수자원공사,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등 주요 기관과 기업을 방문해 각국의 AI·디지털 전환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책임있는 AI 활용을 통해 그 혜택이 인류 전체에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이번 행사가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우리의 비전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가는 의미있는 협력과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제협력관 다자협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한소희 (044-202-4360)
		담당자	사무관	김현호 (044-202-4361)



의장 성명문

AI 및 디지털 장관회의

2026년 10월 19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인공지능 및 디지털 장관회의에서, 60개 국가의 대표들은 인공지능 및 디지털 포용과 접근성, 공공 인공지능 및 디지털 서비스, 혁신적인 인공지능 및 디지털 생태계에 관한 각국의 경험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1. 금번 인공지능 및 디지털 장관회의가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이 가져오는 기회와 과제를 논의하고, 포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및 디지털 발전을 위한 국가 간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인식한다.
2. 참가자들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이 혁신과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한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디지털 인프라와 역량, 신뢰와 안전, 제도적 준비 등 공통의 과제를 수반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이에 인공지능 및 디지털 포용과 접근성, 공공 서비스 혁신, 지속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중심으로 각국의 정책 경험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국가 간 경험 공유와 상호 학습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인공지능 및 디지털 포용과 접근성

3.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에 대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접근이 삶의 질 향상과 포용적 성장, 그 혜택의 폭넓은 확산을 위해 중요함을 재확인한다. 참가자들은 국가 내 그리고 국가 간 인공지능 및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연결성과 경제적 접근성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및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며, 취약계층의 기술 활용을 지원하는 한편 정책 경험 공유와 국제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공공 인공지능 및 디지털 서비스 혁신

4.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공공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중심 공공 서비스의 접근성과 품질을 향상 시키는 중요한 수단임을 확인한다. 참가자

들은 공공 부문의 인공지능 활용이 투명성, 신뢰성, 안전성, 개인정보 보호 및 책임성에 기반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 인프라와 인재 역량 강화 및 정책 경험 공유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혁신적인 인공지능 및 디지털 생태계

5. 지속가능한 인공지능 및 디지털 발전을 위해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중요함을 확인한다. 참가자들은 중소·영세 기업과 창업 기업의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민간 협력과 투자를 촉진하며, 혁신을 뒷받침하는 규제 환경 조성, 책임있는 인공지능 거버넌스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각국의 여건과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포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정책 대화와 경험 공유를 통해 국제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하였다.